

# 21세기 아시아 시대의 교육의 역할

육아정책연구소 Session:

21세기 교육 선진화 초석으로서 유아교육보육의 역할과 과제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17:00~18:30
- 장소 : 서울대학교 12동 502호



## 초대의 말씀

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2012년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학회 창립 이래 개최되어 온 기존 학술대회를 일신하여 교육계의 축제이자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개최된 학술대회를 1회 개최하고, 학회 운영방식도 분과학회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학회가 교육학계 전체로부터 논문 발표 신청을 받고 주제에 따라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서로 섞여 발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학회의 침체와 교육계의 응집력 약화입니다. 1953년 창립된 교육학회는 지금까지 22개의 분과학회를 하위 조직으로 하는 방대한 학회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학회참가자 수와 회비 수입이 줄어드는 등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학회 개최를 위해 여러 기관의 후원을 요청하고 참가를 독려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과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유지해 온 결과, 교육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한계를 노정하였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교육 현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과 같은 공동의 노력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몇몇 대학의 교육학과가 폐과되거나 정원이 감축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교육계 전체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서로 섞여 학술 논문 발표를 하고, 교육에 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며, 이론적 쟁점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대학의 교육학과 학과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학계 및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며, 이들 기관의 협력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회 행사에 필요한 최첨단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였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원팀은 학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주)대교, (주)천재교육, (주)학지사, 김영사, 교육과학사, 아카데미프레스, 신한금융그룹, KDB생명 등의 기관에서도 학회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계 교육전문가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학회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2년 6월

한국교육학회장 **볼 응린**





## 2012 연차학술대회 전체 일정

● Day 1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 장 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2동

시 간	행 사 내 용				
09:00 -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li> </ul>				
09:00 -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Preconference</b> : 연구방법론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신 발전 및 확장 - 강연자 : 홍세희(고려대)</li> <li>▶ 질적 연구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들 - 강연자 : 김영천(진주교대)</li> <li>▶ 상담논문 서론 작성법 : 주요 외국 학술지 논문 내용 분석 - 강연자 : 서영석(연세대)</li> </ul> </li> </ul>				
■ 기관세션					
Session 1			Session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10:3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제</li> </ul>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교원발달과 교육		정서 및 창의성	대학입학사정관과 대학원교육	글로벌교육 1	
■ 이사회					
12:00 - 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찬</li> </ul>				
13:2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ul>				
14: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강연1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 - 문화 및 사회변화 관점에서 본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li> </ul>				
15:00 -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li> </ul>				
■ 기획주제 발표					
Session 1			Session 2		
창의인성 교육			공적개발원조		
■ 전국 교육학 및 교육과정 담당 학과장 회의					
■ 전국 교육학과 학생회의					
16:5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li> </ul>				
■ 기관세션					
Session 3			Session 4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육아정책연구소		
17:00 -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주제</li> </ul>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Session 9
외국어교육 / 영재교육		교육프로그램 및 방법	고등교육과 경쟁력	민족교육과 조선시대 교육	교육재정 및 사교육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찬</li> </ul>				

● Day 2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 장 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2동

시 간	행 사 내 용						
09:00	■ 등록						
09:00 - 10:30	■ 기관세션						
	Session 5			Session 6			
	서울대학교 인적자원연구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포럼			
	■ 자유주제						
	Session 10	Session 11	Session 12	Session 13	Session 14	Session 15	
교육성과 분석 및 컨설팅장학	교육과정	한국과 프랑스의 교원정책	특수교육 / 통합교육 1	연구방법	유아교육 1		
10:30 - 10:40	■ 휴식						
10:50 - 11:50	■ 기조강연2 김기석 (서울대 교수) - 21세기 한국 교육의 글로벌 비전과 책무 : 교육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공헌						
11:50 - 12:10	■ 임시총회						
12:10 - 13:40	■ 오찬						
13:40 - 15:10	■ 기관세션						
	Session 7			Session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BK21 교육복지연구팀 1			
	■ 자유주제						
	Session 16	Session 17	Session 18	Session 19	Session 20	Session 21	
평생학습	교육열 및 대안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원정책과 교사리더십	특수교육 / 통합교육 2	유아교육 2		
15:10 - 15:30	■ 휴식						
15:30 - 17:00	■ 기관세션						
	Session 9			Session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BK21 교육복지연구팀 2			
	■ 자유주제						
	Session 22	Session 23	Session 24	Session 25	Session 26	Session 27	Session 28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교육	학교경영 및 학생행정	사회적 성취, 인성 및 적응	교육과정 / 교육철학	글로벌 교육 2	유아교육3	북한의 교육	
17:00	■ 폐회						

## 기관세션 04. 육아정책연구소

● 발표시간 : 17:00 - 18:30

● 장소 : 사범대학 12동 502호

발표제목	발표자	사회자
▪ 『3-5세 누리과정』 도입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장명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가운 (명지대)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영차프로젝트의 성과 및 과제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역할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종합토론	<b>토론자</b>	
	엄지숙(건국대) 문혁준(카톨릭대)	

## 차 례

### 기관04 육아정책연구소 [사범대학 12동 502호]

- 「3-5세 누리과정」 도입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 1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의 성과와 과제 ..... 21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역할 ..... 37

## 육아정책연구소

---

3-5세 누리과정 도입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장명림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시범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무경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역할  
김은설



# 「3-5세 누리과정」 도입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장명림(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정부는 2011년 5월 2일, 2012년 3월부터 취학 직전의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만 5세 공통과정 제정 TF’ 구성·운영, 공청회, 심의회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세 누리과정<sup>1)</sup>’ 공통과정을 고시하고, 금년 2월까지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과 함께 5세 담당 교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3-5세 모든 유아들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금년 1월에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3, 4세 누리과정 공청회를 거쳐 7월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각자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가지고 유아를 지도해 왔으나,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2012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공통의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취학전 교육·보육의 내용을 하나의 공통과정으로 통합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 교육·보육의 실시라는 제도적 측면의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발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 「만 5세 공통과정」은 명칭공모를 통하여 2011년 7월 14일 「5세 누리과정」으로 공표됨.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의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됨. 이하 만 5세 공통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칭함.

본고에서는 누리과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와 함께 누리과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누리과정이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 Ⅱ.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 1. 「5세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되고 인구의 구조도 변화하게 되면서 노동력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만 5세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교육·보육의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하여 고가의 영어 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계층 간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표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율(2010)

연령	취원 대상아 수 <sup>1)</sup>	이용 인원 및 이용율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유치원 <sup>2)</sup>		어린이집 <sup>3)</sup>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만 5세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만 5세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 부담 비율은 79.7%로, 핀란드 90.6%, 프랑스 94.0%, 영국 86.1%, 미국 77.8% 등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특히, GDP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은 OECD평균이



0.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0.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공공 부담 비율<sup>2)</sup>은 49.7%로 OECD 평균의 62%에 지나지 않아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표 2> OECD 국가의 유아교육 현황 및 재정 비교(2011)

구 분	학생 1인당 연간 유아교육비지출 (단위: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PPP)환산액)(2008)	GDP대비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 (2008)	공적 비용 투입 기관 비율(%) (2007)
한국	4,281	0.2	49.7
덴마크	6,382	0.7	81.2
프랑스	5,787	0.7	94.0
독일	6,887	0.5	72.8
일본	4,711	0.2	43.8
스웨덴	6,519	0.7	100.0
영국	7,119	0.3	86.1
미국	10,070	0.4	77.8
OECD 국가평균	6,210	0.5	79.7

\* 자료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1.

\* 주: OECD 전체 국가의 자료 중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데이터를 발췌한 것임. 단, 공적 비용 투입기관 비율은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0.의 데이터임.

최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국가 지원 체제가 강화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생애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Heckman(2006)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 2003)는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 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영유아기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인지·정서·사회 영역 등의 기초 능력이 집중 형성되어야 하며, 이 시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하여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장명림, 서문희, 양미선, 2011).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2) 우리나라 공공 부담 비율에는 보육은 제외되고 있으나 향후 포함할 예정임.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 2. 「5세 누리과정」의 개요

### 가. 만 5세아를 위한 공통과정 도입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라 금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공통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5세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지원 대상 만 5세아 전체로 확대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 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지금까지 만 5세아의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구분	기존(2011년)	만 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 2012년 이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2년 20만원에서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그림 1] 현행 제도와 ‘「5세 누리과정」’ 비교

<표 3> 만 5세 누리과정 연도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교육	교부금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6,647
보육	국 고	1,316	1,012	-	-	-	-	-
	지방비	1,375	1,036	-	-	-	-	-
	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7,344
	소 계	2,691	2,048	5,996	6,087	6,218	7,204	7,344
교부금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총계		5,173	4,634	11,388	11,569	11,829	13,713	13,991
교부금 추가소요 (‘11년 대비)		-	-	8,802	8,983	9,243	11,127	11,405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5.2)

### 3. 「5세 누리과정」의 추진 경과3)

#### 가. 「만 5세 공통과정」 추진 TF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과 현장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주제와 세부 쟁점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육아정책

3) 장명림(2012. 3). 5세 누리과정 추진경과 및 3-4세 누리과정 추진 과제. 육아정책포럼 29호(3, 4월호).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연구소와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였다.

#### 나. 「만 5세 공통과정」 제정 TF 운영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유아에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 학계, 교원, 전문직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였다.

#### 다. 「만 5세 공통과정」 명칭 공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만 5세 공통과정」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고,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책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5세 누리과정」이 「만 5세 공통과정」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12. 7. 14).

「5세 누리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제공하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통해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라. 「5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개최

5세 공통과정 제정 TF에서 마련한 「5세 누리과정」 제정안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마.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 고시

「5세 누리과정」 제정 TF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5세 누리과정」(시안)을 수정·보완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세 누리과정」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9월 5일,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 최종안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 고시하였다.

#### 바.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5세 누리과정」의 도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후, 9월 30일 최종 개정 공포하였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

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 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 사.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 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유아를 담당할 교사가 「5세 누리과정」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본 해설서와 지침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만 5세 공통과정 제정 TF' 위원,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등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해설서 총론에서는 「5세 누리과정」 제정의 배경과 의미, 특성, 기본·구성 방향, 목적과 목표를 다루었으며, 각론에서는 5개 영역의 성격, 목표 및 내용 구성을 다루었다. 「5세 누리과정」 고시문의 총론과 각론의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해설서와 연계하여 교사들이 누리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지침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5세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 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돕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이다. 「5세 누리과정」 지침서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5개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 활동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도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포함하였다. 특히, 활동 전개에 필요한 교사의 질문 예시와 활동 장면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용 지침서 내용과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장면을 담아 소개하는 동영상(DVD)을 함께 개발·보급하였다.

### 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프로그램 개발

「5세 누리과정」 해설서 및 지침서와 연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교육·보육 활동 계획안과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지도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3~5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총 11권과 DVD 11종을 개발·보급하였다. 지도서는 11개의 생활주제(1. 유치원과 친구, 2. 나와 가족, 3. 우리 동네, 4. 동식물과 자연, 5. 건강과 안전, 6. 생활도구, 7. 교통기관, 8. 우리나라, 9. 세계 여러 나라, 10. 환경과 생활, 11. 봄·여름·가을·겨울)로 개발되었다. 지도서의 보조자료

로 각 생활주제별로 DVD가 개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2시간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5세 누리과정」을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함께 혼합연령반 운영을 위한 연령연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총 12개의 주제(3월 즐거운 어린이집, 4월 봄과 동·식물, 5월 소중한 가족, 6월 우리 동네, 7월 신나는 여름, 8월 교통과 안전, 9월 세계 속의 우리나라, 10월 가을과 자연, 11월 지구와 환경, 12월 겨울과 놀이, 1월 기계와 생활, 2월 초등학교에 가요)로 개발되었다. 또한 교사의 활동 진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자료를 DVD로 개발하였다.

#### 아.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유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집합연수(15시간)와 원격연수(30시간)를 포함하여 총 45시간의 연수로 이루어졌다. 2011년 12월 21일~22일,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중앙연수를 실시하였다. 중앙연수는 시·도별 연수담당 강사요원 148명과 시·도교육청 및 시·도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총 15시간의 연수로 진행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5세 누리과정」 교사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연수의 자료집과 강의용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전국 표준화된 연수를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중앙연수에 이어서 2012년 1월 2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 교사 15,000여명과 어린이집 교사 17,0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15시간의 집합연수가 총 83회 실시되었다.

집합연수에 이어 2012년 2월에는 만 5세아 담당교사를 위한 원격연수가 실시되었다. 원격연수의 제 1부(15시간)는 집합연수의 재교육 과정으로 「5세 누리과정」의 총론 및 각론의 이해, 지도서 활용 및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과정이다. 제 2부(15시간)는 만 5세 유아의 발달과 안전교육, 「5세 누리과정」 운영의 기본 원리,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실제(I), (II),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이 포함된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Ⅲ. 3-4세 누리과정의 확대도입 및 특성

#### 1. 3-4세 누리과정의 확대 도입

정부는 1월 18일, 금년 3월에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비를 지원하여 육아 비용에 대한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것도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만 5세 유아는 '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법제화하였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까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13년 3월			
기관	교육·보육과정	만 5세	만 4세	만 3세	만 0-2세
유치원 (교과부)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복지부)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5세/ 2세/ 2세미만)	(교과부·복지부 공동)			만 2세미만 및 2세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그림 2]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표 4>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구분	'12	'13	'14	'15
국비 + 지방비 ('12년 대비)	7,747	7,747* (-)	4,510** (△3,237)	- (△7,7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년 대비)	4,964	16,781 (11,817)	22,930 (17,966)	30,836 (25,872)
합 계	12,711	24,528	27,440	30,836

주: '12년 기준 3·4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12년 기준 3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 2. 3-4세 누리과정의 제정 절차 및 특성

### 가. 3-4세 누리과정 제정 TF 구성·운영 및 관련 전문가 심의·검토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제정·고시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3-4세 누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였다. 본 TF는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학계, 교원, 전문직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 ◆ 3-4세 누리과정 제정 TF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위 원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2명, 유아교육·보육 학계 각 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각 2명, 유아교육·보육 담당 전문직 각 1명,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담당관 각 2명
- 운영기간 : '12. 3월 ~ '12. 6월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는 지난 3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동작업을 하여 '3, 4세 누리과정' 1차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초등교육 및 영아발달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와 국어학자의 윤문을 거쳐 최종 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12. 6. 11)를 개최하였다.

### 나. 3, 4세 누리과정 제정의 특성<sup>4)</sup>

#### 첫째, 총론 내용 강화

「5세 누리과정」('12. 9. 5 고시문)의 경우에는 총론에서 제시했던 기본·구성 방향, 목적, 목표 외에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을 총론에 포함시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다.

#### 둘째,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내용체계 유지

4)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6. 11).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7월 초에 제정·고시되는 3- 「5세 누리과정」은 3, 4세 누리과정의 제정과 「5세 누리과정」의 개정의 성격을 지님.



3, 4세 유아의 발달에 기초하고,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틀 가능한 유지하였다. 즉,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과 20개의 내용범주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 전체적인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시 내용의 명칭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5세와 3, 4세간의 차별성 및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의 부분적인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3-5세 대상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영역별 목표 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3, 4세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3, 4, 5세를 동일한 목표로 제시하고,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단,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상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3-5세 연령에서 공히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3-4세, 4-5세, 3-5세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학령군별 목표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학년별 내용은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는 학령군 교육과정의 성격과 형식을 따른 것이다.

### 넷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 지속 강조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 제정에서도 기본생활습관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건강한 몸을 기르도록 신체운동 강조하고,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 인터넷·미디어 중독예방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 추가 반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국제화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 다섯째,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5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3세는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 다. 「3-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목적 및 목표

3-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둘째,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 셋째,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 넷째,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 다섯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여섯째,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 4세 누리과정의 목적은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 셋째,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넷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섯째,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위와 같은 구성방향, 목적 및 목표 하에 내용 범주, 내용 및 세부 내용 개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내용범주, 내용 및 세부 내용 개수**

구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총계
내용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인식하기</li> <li>•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li> <li>• 신체활동에 참여하기</li> <li>• 건강하게 생활하기</li> <li>• 안전하게 생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li> <li>• 말하기</li> <li>• 읽기</li> <li>•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알고 존중하기</li> <li>•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li> <li>•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li> <li>•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li> <li>• 사회에 관심 갖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움 찾아보기</li> <li>• 예술적 표현하기</li> <li>• 예술 감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li> <li>• 수학적 탐구하기</li> <li>• 과학적 탐구하기</li> </ul>	20
내용	3세	14	10	10	11	55
	4세	14	11	12	12	59
	5세	14	11	12	10	59
세부 내용	3세	31	17	20	18	103
	4세	32	25	28	24	129
	5세	33	25	29	20	137

### Ⅲ. 3-5세 누리과정 도입의 의미

#### 1.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은 19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까지는 유아 학비·보육료의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국가의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모든 유아 특히 만 5세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유아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미루어 왔던 취학 직전 1년 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그동안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도시지역 중산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정육기관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에 따른 기관 선택 차이가 발생하였다.

3-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투자는 젊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인 동시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출발점 평등 보장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결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취원율이 하락하고 최근에는 영어·특기 등 유아사교육 확산으로 유아교육이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다. 특기·적성 기관이나 영어학원 등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사교육을 유치원 종일반(방과후)에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외부강사에 의한 영어,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 실시로 기본교육과정의 중요성 간과하기에 이르고 최근에는 오후의 특별활동이 아닌 오전 정규 수업시간부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만 0-2세 보육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던 과정을 3-5세 유아에게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양질의 누리 공통과정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강화하여 취학전 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1일 3-5시간에 해당하는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내실화된 기본 과정과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

## IV. 누리과정의 향후 추진 과제

누리과정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요구된다. 3-5세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적 실행 및 확대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0-5세 까지 취학전 교육·보육내용의 체계화 구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만 2.5세 또는 3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틀(framework)을 갖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들은 0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의 단일 교육과정 틀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이나 스코틀랜드 등은 초등교육에서 더 나아가 만 10세, 15세 또는 18세까지 유아교육과정과 연결된 단일 체제의 교육과정 틀을 구성하고 아동의 연속적인 발달 및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희진, 2011). 이에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보다 발전적인 연계·협력을 통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 → 3-5세 누리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교육·보육 내용의 체계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UNESCO는 초기 아동교육을 2개 단계로 구분하는 ISCED 2011 개정안을 채택함('11.11.5).

※ 유네스코가 제정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ISCED level 0" 단계는 0세~취학전 교육을 포함.

① 0~2세 아동 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② 3세~초등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 2. 양질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 강화

양질의 교육·보육 과정의 제공이라는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물적 운영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1, 2급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 수용성을 감안하여 3급 보육교사도 일정 기간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누리과정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급 교사 포함에 대한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실내외 시설 및 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운동·건강 및 바깥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내외 시설·설비 특히, 실외놀이터 보유나 실외 놀이가 가능한 공간 구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3-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지침 제시

「3-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은 기본과정을 의미하며 오전의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시간은 방과후 과정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과 중의 누리과정 적용 시간, 누리과정 영역별 편성 및 교육 시수 등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기본 규정으로 제시해 주되,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별 학급구성 유아의 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혼합연령의 장점을 살려서 혼합반 구성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누리과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혼합 학급구성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혼합반 구성·운영 문제는 5세 누리과정 1개 연령을 대상으로 할 때부터 고려해 온 사항이기는 하나, 이제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3, 4, 5세 3개 연령의 혼합반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혼합반 구성·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5세 누리과정 운영(혼합반)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 4. 「3-5세 누리과정」 기본과정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 관리 필요

「3-5세 누리과정」 공통 기본과정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침이 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오전 3~5시간의 공통기본과정 적용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특별활동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일제 프로그램 개발·보급 외에도, 원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수준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물론 민간프로그램 추천제를 통한 질 관리에 착수하여 3년제 시범적용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활동을 방과후 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3-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 연수 및 교사용 교수 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3-5세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장 교원들이 누리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3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할 교사 약 25,0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2월까지 걸쳐 집중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규모를 고려한 최소 필수 인원에 대한 연수이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3-5세 누리과정」의 취지, 내용 및 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 양성기관에서부터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직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교수-학습 자료와 교재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육아정책연구소가 합동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와 지침서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계획, 환경구성, 교수-학습 방법, 지도상의 유의점 등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2세 연령대와의 내용 연계 지도 방법, 혼합반에서의 효율적인 누리과정 운영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6.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모색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지원, 평가 및 질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의 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 5세아 학급 구성 및 운영,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 시간, 환경구성, 담당교사의 전문성, 누리과정 운영 평가, 부모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취학전 교육·보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체계 하에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전달체계는 다르지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기준과 관점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초기에는 지침서 등에 운영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장학지도가 필요하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수업컨설팅장학 등을 실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원체계로서 보육정보센터가 있기는 하나, 그 숫자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착근과 질 관리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누리과정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7. 유아교육·보육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필요

누리과정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율하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교수, 현장 교원 및 전문직 등이 함께 합심하여 국내 최초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내용상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3~5세 누리과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통합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즉, 누리과정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실천적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교육·보육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및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발전 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여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전문화된 누리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은 물론 관련 단체 및 학회간의 연구협력과 토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김은설(2011).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육아정책, 「교육정책포럼 220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진(2011). OECD 국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실행 전략. 「교육정책포럼 220호」.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 서문희, 장명림, 문무경, 양미선(2011). 만 5세 공통과정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오영희, 박승희, 구성열, 김경철, 이인재, 이견직, 권오정, 김경래(2008).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삼식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명림(2011a).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한국유아교육학회 2011년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다양성과 통섭을 향한 한국유아교육의 실천) 자료집.
- 장명림(2011b). 만5세 공통과정의 추진 배경과 과제.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유아교육 현안. 제 35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및 연수 자료집.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영유아교육학회.
- 장명림(2011c). 5세 누리과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220호」.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 김은영, 박수연, 김은기, 이일주(2009).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명림, 김은영, 이정림, 박수연(2009). 교육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교육 및 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 서문희, 양미선(201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CR2004-23)



OECD(2006). Starting Strong(Ⅱ).

OECD(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한국어 번역본). 한국개발연구원.

UNESCO(2011).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General Conference, 36th Session, Paris 2011.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영차프로젝트의 성과 및 확산 방안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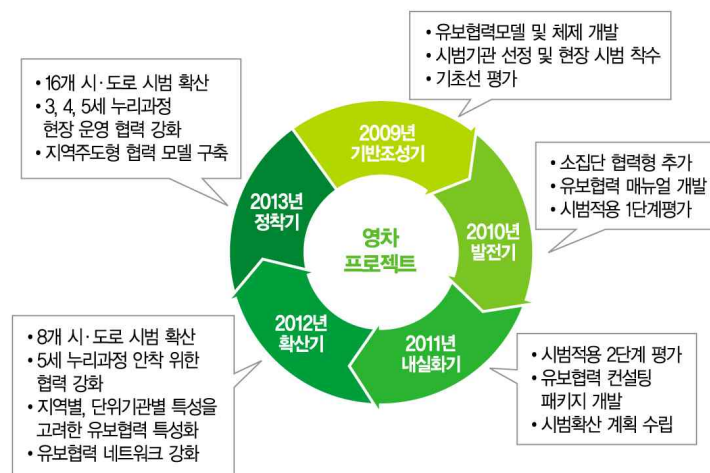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로 인하여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양 부문 간의 협력과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보 통합의 이슈는 생애초기부터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저출산 현상의 대응책으로 취학 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정부 투자가 증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현장, 학계, 유관 단체 등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3-5세 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능의 유사성과 이에 따른 기관 선택에 있어서의 학부모의 혼란 가중, 이원화된 행·재정의 중복과 낭비, 원아모집으로 인한 유보간의 경쟁 심화, 취학 전과 초등학교간의 학습과 발달 경험의 일관성 미흡, 양성과 자격기준 이원화로 인한 육아지원인력간의 분리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협력하고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좀처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6년도부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예: 이옥 외, 2006; 문무경 외, 2007; 유희정 외, 2008). 기존의 연구가 주로 중앙부처간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하향식 접근이었던 반면, 2009년도에는 현장으로부터의 유보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탐색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와 전략들을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영차프로젝트<sup>1)</sup>는 유보협력 실행모델을 개발, 적용하여 그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는 5개년(2009-2013) 시범연구이다. 1차년도(기반조성기)에는 유보협력의 실행모델 개발, 시범기관 선정

1) ‘영차(영차)’는 1) 영유아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의 단결을 상징하며, 2)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의 격차를 ‘제로화(0)’함을 의미함.

및 현장 시범 착수, 시범기관의 기초선 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차년도(발전기)에는 프로그램 협력과 교사 협력 강화, 소집단 협력형 시도, ‘유보 협력 영차매뉴얼’ 개발, 1단계 성과평가 실시에 집중하였다. 3차년도(내실화기)에는 2단계 성과평가, 컨설팅패키지 개발, 시범확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차년도(확산기)에는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의 확대, 5세 누리과정의 운영 협력,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 협력네트워크 강화, 5차년도(정착기)에는 16개 시도로 시범확산 및 지역주도형 협력모델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림 1]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 5개년 추진 계획

본 고에서는 지난 3년간(2009-2011) 영차프로젝트의 성과를 파악하고 시범연구의 성공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차프로젝트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I. 영차프로젝트의 개요 및 추진 과정

### 1. 영차프로젝트의 기본 방향 및 내용

#### 가. 기본 추진 방향

본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생(win-win) 할 수 있는 협력 유형을 발굴하고 협력 체제를 개발한다.

둘째, 유보협력에 있어서 현장의 주도성 또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bottom-up approach)을 전개한다. 이는 연구진이 사전에 처방된 협력내용과 방식을 시범 기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시범기관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협력 방식과 선택을 존중하여 적극 수용, 지원하는 것에 주력한다.

셋째, 중간 행정체계인 지방자치단체, 즉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과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활성화한다. 이제껏 성공적이지 못한 중앙부처의 협력을 감안하여, 보다 행정단위가 작아 협력을 유도하기 유리한 중간 수준의 행정기관을 활용한다.

넷째, 유보협력을 위하여 동원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유아교육체험원,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게 모두 각종 정보와 공간, 교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현 제도권 내에서 실행가능한 협력 전략 발굴 및 시도한다. 현재의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 가능한 사안들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실천한다.

여섯째, 유보 협력 성과와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를 강조한다. 시범기관 관계자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포함함은 물론, 전문 외부평가자에 의하여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 나. 영차프로젝트 유보협력 내용

「영차」 프로젝트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협력 가능한 영역을 크게 ① 기관 운영(행정) ②예산 ③ 시설환경(공간 및 물적 자원 활용), ④ 교사, ⑤ 프로그램, ⑥ 부모참여, ⑦ 지원체계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지원체계는 여타 영역에서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센터와의 연계를 뜻한다.

‘기관 운영(행정)’영역에서는 운영시간, 각종 서류 양식 공유, 원아관리 및 육아지원인력 관리 등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시설환경’영역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상호간의 이용 가능한 공간, 자료, 시설, 설비(수영장, 강당 등), 차량 등을 공동 활용하고, ‘예산’영역에서는 교재교구의 공동 구입, 외부강사비용 공동부담 등, 협력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해 볼 수 있다.

‘교사’영역은 유보 협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영역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기반 영역으로 교사연수, 자율장학, 교사회의 등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영역은 교사들이 유아연령별로 활동계획안을 공유하거나, 함께 작성, 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부모참여’ 영역에서는 각종 부모교육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교육특강 등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유보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체

계, 즉 시도청과 교육청의 정책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범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행정체계의 협력가능 내용을 관리감독, 교사연수 기획 및 실행, 자료개발 및 보급, 예산, 유보협력 운영지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2. 영차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 가. 추진 체계

#### 1) 지역별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각 시범기관의 유보협력을 지원하고 협력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범기관이 소속된 지역별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중간 행정체계인 시도청(계장 및 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담당자(장학관 및 장학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전제로 하며, 시범기관 관계자의 ‘당사자적’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다.



[그림 2] 유보협력 추진체계

#### 2) 중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연구의 수월성과 현장 적용의 효과를 제고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부처 담당과장, 관련 학회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연합회 대표 등으로 중앙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나. 추진 과정

1차년도(2009)에는 시범지역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홍천군 3개 지역에서 공모 절차를 통하여 총 14개원(유치원, 어린이집 각 7개원)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2010)에는 부산 및 강원지역에 8개 기관을 추가하여 총 22개 기관(유치원 10개원, 어린이집 12개원, 재원 영유아 총 1,905명, 교사 총 181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4차년도(2002)에는 8개 시범지역 총 44개 기관(유치원 21개원, 어린이집 23개원, 재원 영유아 총 3,755명, 교사 총 4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3개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2009-2011 영차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정**

1차년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시범지역 및 14개 시범기관 선정 (재원 영유아 총 1,380명)</li> <li>○ 시범지역 담당공무원 및 시범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2009.7.9-10)</li> <li>○ 지역별 시범기관 방문 및 전체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li> <li>○ 시범기관 유보협력 연간 계획, 협력일지와 협의록 작성 및 제출</li> <li>○ 시범사업 홍보물 지원: 차량용 배너 및 앰블렘, 학부모용 안내책자</li> <li>○ 시범기관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특강 지원</li> <li>○ 영차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li> <li>○ 지역별 운영협의회 개최(매월 개최)</li> <li>○ ‘중앙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연2회)</li> <li>○ 시범기관 학부모 전수 조사 실시: 유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요구</li> <li>○ 시범기관 기초선 평가 실시: 서비스 질 및 유보협력 수준 평가</li> <li>○ 시범기관 모니터링 및 상담</li> <li>○ 정책세미나 개최(12.4, 대한상공회의소)</li> </ul>
2차년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협력 추가 시범기관 선정(10.6월): 소집단 협력형 및 초등학교 내 협력형</li> <li>○ 시범기관 유보협력 연간 계획, 협력일지와 협의록 작성 및 제출</li> <li>○ 유보협력 매뉴얼 관련 요구 조사 실시</li> <li>○ 유보협력 매뉴얼 개발 및 활용</li> <li>○ 시범기관장 및 교사 연수(연 3회)</li> <li>○ 시범지역 공무원 연수(연 2회)</li> <li>○ 지역별 운영협의회 개최(격월 개최 정례화)</li> <li>○ ‘중앙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연 2회)</li> <li>○ 지역별 유보협력 시범기관 부모교육특강 실시(연 1회)</li> <li>○ 시범적용에 대한 1단계 평가 및 학부모 전수 조사 실시(10월)</li> <li>○ 정책세미나 개최(11.11, 프레스센터)</li> </ul>

3차년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기관 자체평가 도입</li> <li>○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li> <li>○ 시범기관 교사 연수 실시</li> <li>○ 시범지역 공무원 워크숍 실시: 협력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2단계 시범기관 유보협력 성과 평가</li> <li>○ 시범지원체계 성과평가 지표 개발</li> <li>○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li> <li>○ 2011 영차 우수사례집 발간</li> <li>○ 정책세미나 개최 (2011. 10. 24. 중앙우체국 대회의실)</li> </ul>

특히 3차년도(2011)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2차년도 까지 외부전문가에 의한 1년 단위의 총괄적인 성과평가보다는 개별시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협력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협력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형성적인 내부 평가야말로 협력 성과를 거두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에서이다. 자체적인 내부평가를 통하여 정성적 측면의 협력 성과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와 외부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보협력의 성과를 풍부하게 수집,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협력 측면에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이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영차 시범기관들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 협력은 향후 국가적 수준의 통합커리큘럼의 개발과 실행을 촉진하며, 하나의 선도적인 현장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시범 연구는 시범기관의 협력 못지않게 중간 행정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며 연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3차년도에는 협력 실행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지원체계간의 협력과 시범기관 지원 계획이 실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넷째, ‘영차컨설팅패키지’ 개발하였다. 현재까지는 연구진이 지역별로 시범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보 협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상담해 왔으나, 이는 지역별로 정해진 표준화된 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범기관의 협력 사안과 애로사항에 따라 연구진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협력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컨설팅 패키지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이 향후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상담하고 지원체계에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영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별 영차프로젝트 관련 공지사항 등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며, 범지역 교사간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이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16개 시도군구청과 교육청, 현장에 제공하여 홍보하였다.

### Ⅲ. 영차프로젝트의 성과<sup>2)</sup>

#### 1. 전반적 협력 성과

##### 가. 2010년과 2011년 협력 성과 비교

시범유치원의 3차년도 협력성과는 2차년도에 비해 협력점수가 21.67점 상승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협력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질 지표 역시, 27.86점(2010년에 69.57점, 2011년에 97.43점) 상승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유보협력 성과평가 점수는 2010년에 671.66점에서 2011년에 962.63점으로 290.97점 상승하였다.

한편, 시범어린이집의 3차년도 협력점수는 21.45점 상승(2010년 45.73점, 2011년 67.18점)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 지표는 28.53점(2010년 57.55점, 2011년 86.08점) 증가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또한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범유치원과 시범어린이집 모두 협력성과 평가 총점은 292.80점 상승하여(2010년 607.88점, 2011년 900.68점) 3차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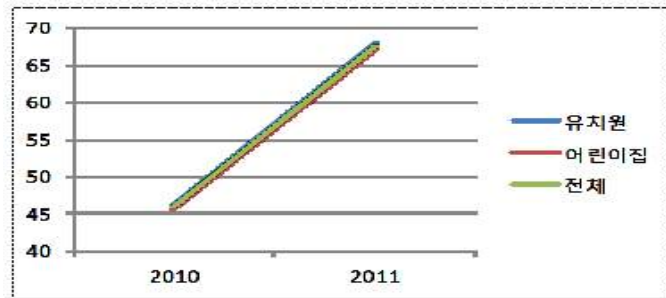
〈표 1〉 시범기관 2010년과 2011년 협력성과 평가결과 비교

지표 구분		시범유치원		시범어린이집	
		2010년 환산점수 평균	2011년 환산점수 평균	2010년 환산점수 평균	2011년 환산점수 평균
운영협력 (50)	행정(20)	41.50	62.50	42.92	62.50
	예산(30)	55.66	75.00	58.05	74.43
환경협력 (25)	실내(15)	52.66	69.33	48.33	66.13
	실외(10)	41.00	69.00	38.33	67.50

2) 3차년도(2011) 시범기관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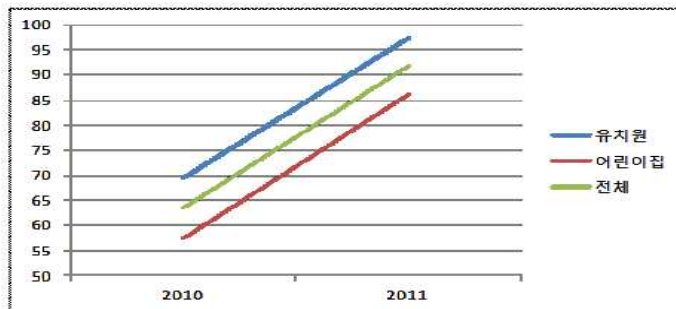
프로그램 협력 (75)	유아(30)	46.00	68.33	49.16	68.60
	교사(30)	53.66	<b>81.33</b>	51.11	<b>78.90</b>
	부모(15)	33.33	50.00	32.22	52.20
협력지표 소계 (150/700)		2,300.48 (46.26)	2,436.49 <b>(67.93)</b>	320.12 (45.73)	470.26 <b>(67.18)</b>
기관 운영(30)		86.99	99.67	74.71	91.40
기관 환경(10)		68.00	98.00	48.33	85.00
기관프로그램(25)		67.20	94.80	56.67	76.32
건강영양안전(30)		73.66	98.67	64.72	91.10
개별 서비스(5)		52.00	96.00	43.33	86.60
서비스질 지표 소계 (100/500)		2,596.33 (69.57)	2,827.63 <b>(97.43)</b>	287.76 (57.55)	430.42 <b>(86.08)</b>
총 점(250/1200)		671.66	962.63	607.88	900.68

3차년도의 시범기관 평가 결과, 협력 수준은 2차년도에 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각각 67.93점과 67.18점으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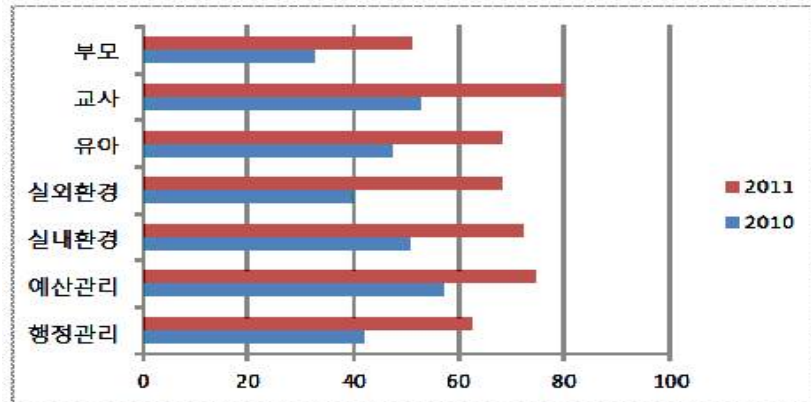
[그림 2] 협력지표 점수 비교(2010-2011)

한편, 서비스 질 지표는 3차년도에 시범유치원과 시범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수준은 각각 97.43점과 86.08점으로 양자 간에 차이는 있으나, 2차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30점 가까이 향상되었다.



[그림 3] 서비스질 지표 점수 비교(2010-2011)

협력영역별로 나타난 3차년도 전체 시범기관의 협력성과는 교사영역에서 2차년도에 비하여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실외환경영역으로 조사되었다. 교사협력영역은 단일영역으로도 3차년도에서 성과가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절감이 3차년도 자체의 성과로는 두 번째로 협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협력지표 하위항목별 점수 비교(2010-2011)

시범유치원의 경우, 전체 시범기관의 협력 성과와 유사하게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교사협력영역의 성과의 향상 정도가 가장 높고 실외환경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범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요컨대,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시범기관의 협력수준과 서비스 질 수준은 각각 약 60% 향상하였으며, 3차년도(2011)는 2010년도 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 수준은 각각 68% 정도 향상되었다. 서비스 질의 경우 역시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시범유치원의 경우 71% 정도 향상되었으며, 어린이집도 68%로 유사한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협력 정도가 높으며, 일대일 협력형이 소집단 협력형보다 더 높은 협력 수준을 나타내었다. 협력영역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사협력'부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났고 그 다음이 예산 절감을 위한 협력부분이 높고 2차년도와 동일하게 부모교육과 참여부문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세부 성과

### 가. 설립유형별 성과

유치원의 경우 협력 지표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협력지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협력 영역의 예산관리 항목이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협력 영역의 부모 항목 점수가 가장 낮았다. 민간 어린이집은 프로그램협력 영역의 교사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환경협력 영역의 실내환경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협력형태별 성과

협력지표에서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모두 프로그램협력 영역 중 교사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협력 영역 중 부모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협력 지표 총점의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보다는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유보협력의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서비스 질 지표에서는 일대일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개별서비스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관프로그램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반면, 소집단 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관프로그램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다. 협력영역별 성과

##### (1) 기관운영 협력

2011년은 유보협력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1, 2차년도에 비해 시범기관 간 친밀도 및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보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기관운영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기관은 협력활동을 고려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특정 연령의 연간계획을 동일하게 세움으로써 교육·보육 활동의 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할 수 있었다. 한편, 제도적인 제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운영시간 조정, 교사대체인력 활용 등의 협력은 여전히 어려웠다.

##### (2) 시설환경협력

3차년도에도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차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정례화되고 기관간의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시설환경 활용의 정례화

를 통한 협력의 지속성이 강화되었고, 물리적 환경 협력을 토대로 한 단계 진전된 사후협력으로 이어져 유보협력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협력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 (3) 프로그램 협력

기존 1, 2차년도의 협력활동을 바탕으로 질과 양 모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차년도에는 일회성 협력활동을 주로 실시하였고, 그에 반해 2차년도의 프로그램 협력은 지속적인 공동협력활동으로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3차년도의 협력은 연중 프로그램 활동으로 확대 및 심화되었다.

협력활동은 반드시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기관에서 각원의 운영상황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공통된 주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협력형태가 한 단계 발전하였다. 또한 3차년도 프로그램 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의형제 맺기 활동 등을 토대로 유아들의 상호관심 및 정서적 유대감 증진이라 볼 수 있다.

### (4) 교사협력

시범기관들은 1, 2차년도의 경험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협력영역 중 교사협력이 다른 영역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 3차년도의 교사협력은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교사교육 실시 및 연수정보 교류, 특히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체 교사연수가 많이 이루어졌다. 3차년도 사업이므로 이미 시범기관 간 교사협의회의 정례화 및 유보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어 협력에 유리하였다.

### (5) 부모교육 및 참여 협력

3차년도에는 부모교육 및 참여와 관련된 협력을 위한 시범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 협력기관 자체 주관의 공동 부모교육과 공동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었다.

### (6) 예산협력

3차년도에는 모든 시범기관에서 연초 수립한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내용이 다양화되었으며, 절감비용 또한 확대되었다.

## IV. 유보협력 시범연구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 1. 성공요인

첫째, 시범기관 원장 및 교사의 협력의지와 노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온종일 보육업무로 함께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양측기관 교사 모두 협력활동 계획과 실행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의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적 적용을 통한 보다 심도 있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한 점은 가히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가 지원체로서 기능한 점이 다. 기존의 Top-down 접근을 온전히 채택하기보다는 현장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Bottom-up 접근과 동시에 지원의 형태로 중간행정체계가 동참하여 단위기관수준의 협력을 넘어서 과급효과를 가져오기에 보다 유리하였다.

셋째,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활동을 위한 시도군청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다. 2009년도에는 본 연구소가 일정 기준에 설정하여 기관 당 연간 250만원-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부터는 각 시범지역 시도군청과 교육청에서 시범기관 당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시범기관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으며, 시도청과 교육청이 자체사업으로 지원예산을 확보한 것 자체가 유보협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넷째,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이다. 시범기관의 이용 가능한 시설설비, 차량은 물론,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나아가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기관에게 무료로 보급하였으며, 시범지역과 기관 간에 특장점이 있는 시범기관장 및 교사를 상호 교류하여 자체연수를 가능케 하였다.

다섯째, 시범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본 연구소와 지역별 연구진의 리더십이다. 시범지역 담당연구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정기적인 지역운영협의회 개최, 개별 시범기관 상담 및 모니터링, 시범지역별 교사연수, 영차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주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보협력에 대한 연구소의 사명의식과 책임이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어왔다.

여섯째, 유보협력 성과의 증거를 다양한 채널로 수집하고 공유한 점이다. 유보협력의 성과를 아동 발달 및 학습의 진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협력의 수준과 서비스질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이 다양해지고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차년도에 도입한 자체평가는 교사 스스로 목표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고,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한 협력 사례의 적극적인 공유는 유보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2. 저해요인

첫째, 시범기관 교사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 시간 확보는 1차년도부터 가장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시범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온종일 수업과 유치원 교원들의 종일반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워크숍 등 협의회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시간 조정을 모색하였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의 숙제로 남아 있다.

둘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계 및 일관성있는 지원체제 부족,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아래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난 3년간 시범지역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변동은 유보협력사업에 대한 정보와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셋째, 시범기관의 유보협력 지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해당시도청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으나, 3개년 시범사업이 완료된 2012년도부터의 예산은 새로이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가변적이어 의도치 않게 시범사업의 중단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넷째, 시범사업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도가 미온적이며, 시범지역 시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심적,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중간행정체계가 주도적으로 해당지역의 유보협력을 지원, 유도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유보협력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독자적인 적극성의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V. 영차프로젝트의 확산 방안

## 1. 시범기관의 협력 체계화

첫째, 전국에서 선정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유보협력 및 성과에 교사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 관련 각종 CD-ROM, 인쇄책자 등을 교사에게 지원한다. 둘째, 5세 누리과정의 정착과 이와 연계한 만3-4세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적 적용을 모색한다. 공통과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만 3, 4, 5세 담당 아동의 연령별로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가장 성공적,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교육·보육활동 공유하고 5세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4세, 3세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공통과정 현장 적용에 대비한다. 셋째, 16개시도로 시범사업을 확산할 경우, 자체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 또한 기존의 단위시범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평가양식, 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도록 한다.

## 2. 지역별 유보협력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시범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시범기관 자체의 필요에 따라 협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시범기관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보다 적절한 심층적인 협력 관련 정보와 사례 발굴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협력모델은 시설환경 협력(차량 지원, 급식지원,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등), 도시 협력모델은 행사 공동 준비 및 실행, 공동교사연수, 소집단 협력형은 차량 등 물적 자원의 보다 원활한 공유, 운영시간 조정 협력 등을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협력 실행 기반 강화

첫째, 영차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변동사항 최소화 및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시도군청과 교육청의 연간 협력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체제 강화한다. 본 시범연구는 5차년도(2013년)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으로 유보 협력의 풍토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범지역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시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시범기관에 최소한의 예산 지원, 2) 유보협력기관에 연간협력계획에 따른 활동 독려와 관리감독, 3) 교사연수, 4) 자료개발 및 보급 등이 요구된다.

## 4. 유보협력 영차 네트워크 구축

유보협력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하여 시도청과 교육청을 주축으로 다단계의 유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현재 영차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 운영협의체는 상당히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시도청과 교육청 공무원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유치원



과 보육시설연합회 지회와 연계하여 확산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공·사립유치원 협력체제로 ‘유치원 협력네트워크’ (Together Network) ‘의 외연을 확장하여 공·사립유치원간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린이집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의 풍토를 조성하여 유보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현재 유치원 협력네트워크는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일 지역교육청 내 5~10개 내외의 공·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유치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통학버스 공동 활용, 영양사 공동 활용, 식자재 공동 구매, 행정요원 확보 및 종일제 인력 공동 관리 등으로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거점기관 담당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유보협력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일반화

첫째, 영차 홈페이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청과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기타 지역센터 홈페이지, 공·사립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홈페이지에 ‘영차배너’를 각 기관초기 화면에 탑재, 링크 한다. 둘째, 영차 e-소식지 발간 및 배포한다. 매월 또는 격월로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유보협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기관간의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우수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영차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을 유사한 여건에 있는 비시범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범지역 내에 보급하여 유보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차적으로 추진된 협력시범연구의 전반적 정보를 기록하는 유보협력 영차 연차보고서를 집필, 발간한다. 또는 유보협력 성과를 간단한 요약 책자로 발간하여 주요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섯째, 유보협력 시범운영기관의 성과보고회를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여 연1회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화 가치를 높인다. 여섯째, 전국 보육시설에 배포되는 ‘보육사업 안내’에 유보협력에 대한 지침과 영차시범 사례가 포함된다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문무경·이윤진·이세원(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 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김은설·김진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양시내(2009).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체제 시범적용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이정원·황해익·문혁준·김문정(20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모델 시범적용의 과정과 성과 분석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김혜진(2011).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모델 시범적용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역할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I. 서론

아동발달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다. 타고난 기질과 재능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좌우하고 부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데 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Harris, 2002), 부모가 자녀를 어떤 사고와 태도로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가가 그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또한 여전히 많다(Berk, 2005; Collins et al., 2000; Hart, Newell, & Olsen, 2003). 후자의 입장에 서있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사회성, 적응성 등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Patterson & Forgatch, 1995; Wolchick et al., 2003; Furman et al., 2002). 아동의 성장, 특히 성격발달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교육을 받아 왔고 알고 있는가? 인간은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부모가 되어 그 역할을 익히게 되고 자녀를 돌보게 된다는 오랜 전통적 사고의 답습으로 충분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나 교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업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자격심사를 필요로 한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하는 직업조차 그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습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부모라는 역할은 그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많은 학자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 양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김희진, 2008; Galinsky, 1994). 즉 현대사회의 부모는 과거와 달라진 부모와 자녀 중심 가족의 형태에 적응해야 하고 자녀를 만능으로 양육하기 위한 스트레스도 커진 만큼 부모에 대한 교육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환경적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부

모의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적 측면들은 장래 자아 형성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의 부모에 대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그 외 양육지원 기관들은 부모교육의 주체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와 의존적 관계를 기반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함께 제공할 때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다.

유치원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요구되는 지표에는 공통적으로 ‘가정(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정기적인 부모 면담, 부모교육활동의 제공, 부모 간의 교류기회 제공,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해 부모와의 연계, 부모교육, 부모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에 대해 영유아 부모와의 협력과 교류, 교육을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방식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알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의 개인면담이나 참관수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의 부모교육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이 교육·보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sup>1)</sup>

## II. 부모교육의 개념과 효과

###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을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희진(2008)은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을 ‘부모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강조된 용어’로 정의하고 강연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태도, 기술, 전략 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활

1)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김은설, 최진, 조혜주, 김경미 공저)”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등을 부모교육의 예로 들었다. 또한 김금주 등(2005)은 부모교육을,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 나중에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배운 정보와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은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라고 생각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는 주로 부모를 피교육자로 생각하여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주요한 역할로 생각해왔으나 부모-기관 간 협력에서 오는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부모는 기관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매김하면서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부모참여라는 광의의 용어가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금주, 유운영, 2005; 김경희, 김서영, 김신영, 김지은, 김혜금, 문혁준, 서소정, 안선희, 안효진, 이희경, 정선아, 황혜원,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과거처럼 교육을 통해 부모를 변화시키고 계몽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동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동반자로서 부모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관 자체의 교육적·보육적 효과도 확대해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orton(1994)은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동과 가족의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강화시키고 부모가 바람직한 신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부모교육이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부모교육의 역할은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올바른 양육 태도와 기술을 주제로, 부모로서의 소양과 가치관, 부모로서의 삶과 자녀양육, 영유아의 사고와 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대화기술, 영유아기의 놀이와 학습, 문제행동의 예방과 수정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김영옥, 2008).

## 2. 부모교육의 효과

부모교육은 영유아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도울 목적으로 개발되고 실시된다. 영유아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정서적·정신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환경에 민감하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주요한 주제인 부모 역할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보면, 초기 양육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로부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또는 신념 등에 관한 연구로 확산되어 왔다. 자아개념(Fitts, 1972), 양육 효능감(Goldberg 1977), 양육 행동에 대한 귀인(Dix & Grusec, 1985), 양

육스트레스(Cronic & Greicberg, 1990) 그리고 신념-행동 패러다임(Siegel, 1985) 등에 관한 연구가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서 부모 인식과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효과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의 과정은 부모 역할에 심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조절과 힘을 실는 기제로 작용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의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는 사회적 연계를 촉진하고 사회적 지지, 인지 관련 지지(정보, 충고, 조력 등)를 찾도록 고무하여 사회적 접촉과 지지망을 확장시켜준다(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교육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부모 상담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만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CUPEM(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프로그램 실시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부모 유능감은 높아졌으며 모-자 상호작용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변화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인 본인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명령식 훈육에서 대화식 훈육 방법으로 변화됐으며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유아기 자녀의 발달을 생각하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변화가 보였다. 자녀 역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짜증이나 다툼 및 투정이 줄었고 규칙을 정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로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진이, 정문자, 2006).

### Ⅲ. 연구 방법

조사대상의 규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1,260명이다.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유치원 부모와 어린이집 부모 각각 140명, 280명이 포함되었다. 유치원 부모와 어린이집 부모 간 수적 차이는 기관(시설)의 설립유형(유치원 2유형, 어린이집 4유형)에 따라 표집수를 달리하여 나타난 결과로, 부모조사 대상의 수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법이다.

<표 1> 조사대상 영유아 부모 수

단위: 명

	유치원 부모	어린이집 부모	계
대도시	140	280	420
중소도시	140	280	420
농어촌	140	280	420
계	420	840	1,260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는,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지난 1년간의 부모교육 참석 현황, 선호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시기 등을 조사함으로써 수요자로서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교육·보육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모 대상 교육 활동 즉, 강연회,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상담 등 모든 활동과 교육적 정보를 담은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문 발송도 모두 포함된다.

## IV.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조사의 결과를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석 현황, 선호 및 요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부모교육 필요성의 인식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74.8%가 부모교육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러나 부모 간 비교를 보면, 어머니가 76.8%로, 63.5%로 나타난 아버지보다 13.3%포인트 높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어머니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은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양육을 어려움도 직접 겪는 어머니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도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chi^2(df)$
전체	74.8	12.7	12.5	100.0(1,260)	
부/모					
아버지	63.5	17.7	18.8	100.0( 192)	15.3(2)***
어머니	76.8	11.8	11.4	100.0(1068)	
지역규모					
대도시	73.3	15.2	11.4	100.0( 420)	10.2(4)*
중소도시	79.0	10.2	10.7	100.0( 420)	
읍면	71.9	12.6	15.5	100.0( 420)	

\* p<.05   \*\*\* p<.001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발달과 건강, 교육에 대한 전문정보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가정과 유치원의 상호의견 교환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31.6%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부모교육의 필요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교육 전문정보 획득	가정과 상호 의견교환	부모 자아실현 교육	교육·보육 기관 프로그램 이해	계	$\chi^2(df)$
전체	62.3	31.6	2.9	3.3	100.0(941)	
부/모						
아버지	56.6	36.9	4.1	2.5	100.0(122)	3.1(3)
어머니	63.1	30.8	2.7	3.4	100.0(819)	
지역규모						
대도시	63.8	30.3	3.3	2.6	100.0(307)	2.6(6)
중소도시	63.0	31.6	2.1	3.3	100.0(332)	
읍면	59.9	32.8	3.3	4.0	100.0(302)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160명)을 대상으로 응답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표 4 참조), 전체의 45.6%가 교육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책이나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응답도 21.9%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4〉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부모교육 불필요 이유

단위: %(명)

구분	부모교육 받을 이유 없음	책, 매스컴 통해 정보 얻음	부모교육 수준 도움안됨	교육위한 시간 내기 힘들	계	$\chi^2(df)$
전체	21.9	22.5	10.0	45.6	100.0(160)	
부/모						
아버지	23.5	14.7	5.9	55.9	100.0( 34)	2.9(3)
어머니	21.4	24.6	11.1	42.9	100.0(126)	
지역규모						
대도시	28.1	14.1	7.8	50.0	100.0( 64)	7.7(6)
중소도시	14.0	27.9	9.3	48.8	100.0( 43)	
읍면	20.8	28.3	13.2	37.7	100.0( 53)	



##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석 현황

지난 1년간 교육·보육 기관으로부터 부모교육 관련 행사에 대한 참석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참석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부모들의 응답은 다음 <표 5>와 같다.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인 것은 담임교사와의 상담이고 강연회 등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교육 안내수령 여부 및 참석률

단위: %(명)

구분	안내받음(A)	참석함(B)	안내수령비율 대비 참석률(B/A)	총사례수
부모참여 공개수업	62.8	46.5	74.0	(1,260)
담임교사 상담	79.9	79.9	100.0	(1,260)
원장 상담	34.7	24.8	71.5	(1,260)
부모교육프로그램	51.5	36.4	70.1	(1,26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지난 1년간 참석한 유형을 살펴보면, 인쇄매체(통신문, 책자 등)를 통한 부모교육이 9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개별상담(73.1%), 입학 및 오리엔테이션(48.4%)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인쇄매체를 주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에서 제외한다면, 교사와의 자녀 상담이 참석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부모 성별로 살펴보면, 인쇄매체를 통한 부모교육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개별상담이나 입학 오리엔테이션, 유명강사나 원장의 강의 등에 참여하는 비율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집단에서 더 높았다.

<표 6> 지난 1년간 참여한 부모교육 종류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개별 상담	인쇄 매체	입학 OT	유명강사 특강	원장 특강	원장 정기강의	부모 워크숍	취미, 특기교육	사례수
전체	73.1	96.3	48.4	11.1	5.9	1.8	12.1	2.8	1,242
부/모									
아버지	26.6	97.3	21.2	2.7	2.7	0.5	10.3	2.2	184
어머니	81.2	96.1	53.1	12.6	6.4	2.0	12.4	2.9	1,058
지역규모									
대도시	71.5	97.6	41.7	12.7	5.4	1.5	9.0	3.4	410
중소도시	76.3	95.7	50.5	10.8	6.9	1.7	14.1	1.4	418
읍면	71.5	95.7	52.9	9.9	5.3	2.2	13.0	3.6	414

지난 1년간 참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의 63.5%가 바람직한 부모역할, 훈육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은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37.6%), 발달을 돕는 놀이 및 교육방법(37.2%) 순이었다(표 7 참조).

〈표 7〉 참여한 부모교육의 주요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발달 이론	놀이 교육방법	바람직한 부모역할	건강영양 안전관리	부모 자아개발	교양 강좌	기타	계
전체	37.6	37.2	63.5	24.0	13.6	1.7	2.1	100.0(521)
부/모								
아버지	31.8	38.6	72.7	29.5	18.2	0.0	0.0	8.4( 44)
어머니	38.2	37.1	62.7	23.5	13.2	1.7	2.1	91.6(477)
지역규모별								
대도시	33.5	34.8	61.4	20.9	11.4	0.6	3.8	30.3(158)
중소도시	35.7	40.5	64.9	25.9	13.5	1.1	2.7	35.5(185)
읍면지역	43.3	36.0	64.0	24.7	15.7	3.4	0.0	34.2(178)

지난 1년간 참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표 8 참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5%(매우만족 12.1%, 만족 57.4%)로 절반이상이 부모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79.1%)가 아버지(66.7%)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8〉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2.1	57.4	29.0	1.3	0.2	100.0(521)	3.8	0.67	
부/모									
아버지	10.3	56.4	30.8	2.6	0.0	100.0( 39)	3.64	0.75	-1.7
어머니	17.9	61.2	18.8	1.7	0.5	100.0(420)	3.81	0.66	
지역규모									
대도시	13.1	67.2	17.5	2.2	0.0	100.0(137)	3.79	0.80	
중소도시	17.6	62.4	17.0	1.8	1.2	100.0(165)	3.76	0.83	0.68
읍면	20.4	53.5	24.8	1.3	0.0	100.0(157)	3.84	0.85	

### 3. 부모교육에 대한 선호 및 요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사는 전체의 57.6%가 육아관련분야 전문가라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는 특정분야전문가(25.0%), 교사(11.7%)순이었다(표 9 참조).

현실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원장 혹은 시설장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부모는 부모교육 강사로서 원장이나 시설장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사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하는 것에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부모가 선호하는 부모교육 강사

단위: %(명)

구분	교사	원장·시설장	육아분야 전문가	특정분야 전문가	계	$\chi^2(df)$
전체	11.7	5.6	57.6	25.0	100.0(1260)	
부/모						
아버지	14.6	6.3	53.1	26.0	100.0( 192)	2.6(3)
어머니	11.2	5.5	58.4	24.8	100.0(1068)	
지역규모						
대도시	12.4	3.3	57.4	26.9	100.0( 420)	9.1(6)
중소도시	10.2	6.2	59.5	24.0	100.0( 420)	
읍면	12.6	7.4	56.0	24.0	100.0( 420)	

\* p<.05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의 주제를 알아보면,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과반수 이상(50.3%)을 차지하여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지역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발달 이론	놀이 교육방법	바람직한 부모역할	건강영양 안전관리	부모 자아개발	교양 강좌	계
전체	14.7	22.2	50.3	6.9	5.5	0.4	100.0(1260)
부/모							
아버지	15.1	23.4	48.4	7.3	4.7	1.0	100.0( 192)
어머니	14.6	22.0	50.7	6.8	5.6	0.3	100.0(1068)
지역규모							
대도시	17.9	26.2	47.9	4.3	3.1	0.7	100.0(420)
중소도시	11.9	23.8	51.9	5.7	6.7	0.0	100.0(420)
읍면	14.3	16.7	51.2	10.7	6.7	0.5	100.0(420)

다음으로는 놀이방법에 대한 교육(22.2%)을 필요로 하고 세 번째는 ‘발달이론’(14.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이방법에 대한 교육은 부모역할 교육과도 상통하는 만큼 부모역할과 놀이 등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선호가 뚜렷하다. 그러나 반면 자녀의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6.9%) 이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건강, 영양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교육·보육 기관의 부모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이기 보다는 온라인이나 지인활용 등 보다 손쉬운 접근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면 이해하기 쉽고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보다 다차원의 사고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모되기과 관련한 교육은 부모들이 여전히 목말라하는 주제임을 알 수 있고, 부모교육이 필요한 분야임을 느끼게 한다.

교육·보육 기관에서 부모교육 등 행사를 진행할 시 영유아의 부모들이 가장 참석을 선호하는 요일을 조사해 보았다. 토요일이 41.0%로 가장 높은 선호 요일로 나왔고 다음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평일이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8.7%로 가장 낮았다(표 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집단별 비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금요일이나 일·공휴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평일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보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버지 집단은 51.6%가 토요일을 원한데 반해 어머니 집단은 39.0%가 토요일을 선호하고 53.4%의 여성은 월~목요일 및 금요일 등 평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요일을 다르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1〉 부모교육 참석 선호 요일

단위: %(명)

구분	월-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공휴일	계
전체	24.3	17.9	45.3	12.7	100.0(1,260)
부/모					
아버지	16.7	14.1	51.6	17.7	100.0(192)
어머니	31.8	21.6	39.0	7.6	100.0(1068)
지역규모					
대도시	28.8	19.0	40.2	11.9	100.0(420)
중소도시	27.6	21.0	44.5	6.9	100.0(420)
읍면	32.1	21.4	37.9	8.6	100.0(420)
기관유형					
유치원	33.8	17.6	41.2	7.4	100.0(420)
어린이집	27.4	21.9	40.7	10.0	100.0(840)

## V. 결론: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다수가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장 면담<sup>2)</sup>에서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참여율이 매우

낮아 진행이 어렵고 오히려 '교육'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은 참관수업, 참여외활동 등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의 상담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 교사와 보다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선호하고 반면 자녀의 생활을 직접 보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덜한 것이다.

현대의 영유아부모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가 많고 어린 자녀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여유 없이 힘들어하는 주부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교육·보육 기관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렇다보니 자녀와 직접 관계되는 활동에 우선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사에서 보듯이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를 원한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한 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국가 및 사회제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최근 들어 유아교육학자들은 '부모교육'이라는 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를 '부모참여'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권하기도 한다. 부모를 교육해야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교육·보육 기관의 인력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육아의 주체로 봄으로써 '교육'을 할 상대라기보다는 영유아 교육·보육 활동의 조력자로 보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때 교육·보육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모교육은 강의식, 주입식 강연의 과정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또는 보육)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보고 체험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교육적 부모참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견지에서 부모 참여를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는 부모참여 수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모는 공개수업 참여 경험을 통하여 교사가 자녀를 대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며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연간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부모참여수업 횟수를 늘여야 하며, 나아가 부모교육 강연회 등을 폐지하고 참여수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주말 가족 활동을 통한 부모교육이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보육 기관 참여 행사를 위한 요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아버지들의 교육 필요성 인식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여의한 주말을 골라 1-2시간 정도 온가족과 아버지를 참여시켜 자녀

2) 본 연구의 부모대상 설문조사와 별도로 일부 원장과 시설장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음.

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부모교육 자율 공동체」 구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소집단 교육을 원하는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월 1회 정도 저녁 시간에 마련하여 부모가 육아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하는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공동체 내에서 찾을 수 있고 부모 역할에 대한 상호 지지 집단을 얻게 된다.

## 2.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지원체계의 역할 강화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모교육까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50%가 넘는 부모들이 외부 전문가를 부모교육 강사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강연식 교육은 교육·보육 기관 차원을 넘어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체계에 속하는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허브(hub)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자원의 제공과 지원을 각각의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정보센터가 부모교육을 맡아 할 수 있다면 교육·보육 기관의 부모교육 부담은 줄어들면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 부산, 경남 등 몇 군데에 지나지 않고 보육정보센터 또한 전국 40여개에 불과하여 부모들이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과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상호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기관들이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가. 부모교육 전문가 풀(pool) 구성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보육정보센터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를 부모교육 지도자로서 확보하고 이들과 일련의 계약을 통해 인력풀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정해 둘 수 있다면 교육·보육 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강사를 요청할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보육정보센터는 미리 확보한 강사풀에서 주제에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고 연결해 줄 수 있다.

## 나. 교육·보육 기관 권역별 부모교육 진행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보육정보센터가 비용을 담당하면서 주도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물리적 공간을 빌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는 하나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인근의 교육·보육 기관을 묶어 권역별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권역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한 기관 부모로만 자리를 모두 채워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곳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만으로는 강사를 초청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정어린이집 2-3곳과 국공립 한 곳 정도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소를 빌려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진행이 원활할 수 있다.

## 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 특히 취업한 어머니나 아버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 부족이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 회피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보육정보센터가 근로자 부모가 많은 직장에 접근하여 사원교육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시도해 볼만하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얻게 된 부모교육적 경험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향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3. 부모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부모'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부모교육·참여 지원부분에 대한 예산의 증액, 부모교육 이수에 대한 크레딧 제도의 활용, '육아데이'의 활성화, 부모교육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지자체 및 교육청의 부모교육 예산 확대

2008년 현재 지자체 중 부모교육 분야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곳은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시에 불과하며 그것도 총 6천여 만원이 전부이다. 교육청의 경우는 수적 지원액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부모연수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논의한 바처럼 부모교육 지원체계 즉,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정보센터가 부모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예산의 증액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으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나. 부모교육이수 크레딧 제도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도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들이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시간이 없는 부모나 동기를 갖지 못하는 부모이더라도 어느 정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만일 가시적인 크레딧이 주어진다면 부모교육 참여는 보다 큰 사회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개인의 참여 노력도 커질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방안으로, 부모가 정해진 기관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자녀교육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 보험 상품 가입 시 일정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신용카드 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교육비의 일정 비율(2% 정도)을 적립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과 단체, 기업 등에 정책적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 다. 육아데이 활성화와 부모교육 중요성의 홍보

저출산 타개 정책과 맞물려, 몇 해 전 ‘육아데이(Child Rearing Day)’로 지정하여 부모들이 가정에 일찍 귀가하고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회사나 모든 직장에서 이를 보장해 주자는 국가적 노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고 직장의 참여도 미미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부모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육아데이를 가정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를 통한 교육이나 부모교육 자율 공동체 참석 등에 이 시간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보육 기관과 교육청, 보육정보센터 등이 육아데이의 활용에 동참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을 비롯한 부모의 직장이 가장 먼저 동의하고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



육청이 중심이 되어 영유아기 자녀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육아데이와 부모교육 및 참여를 연결짓는 일은 초기 육아데이 신설 취지인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측면과 미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한 몫을 할 수 있는 사업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 · 김선영 · 김신영 · 김지은 · 김혜금 · 문혁준 · 서소정 · 안선희 · 안효진 · 이희경 · 정선아 · 황혜원(2006). 보육학개론. 창지사.
- 김금주 · 유윤영(2005). 부모,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부모 참여. 정민사.
- 김영옥(2008). 부모교육. 공동체
- 김진아·정문자(2006).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 회지, 44(7), 53-62.
- 정계숙·노진형(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79-105.
- Berk, L. E.(2005). Child Development.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Collins, W. A., Mccoby, E. E., Steinberg, L. D.,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Furman, W., Simon, V.A., Shaffer, L., & Bouchey, H. A.(2002). Adolescents' working models and styles for relationships with parent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Child Development, 73, 241-255.
- Galinsky, E.(1994). Families and work: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the work environment. In S. Kagan & B. Weissbourd(Eds.), Putting families first: America's family support movement and the challenge of change (pp.112-136). Jossey-Bass Publishers.
- Harris, J. R.(2002). Beyond the nurture assumption: Testing hypotheses about the child's environment. In J.G. Borkowski & S.L.Ramey(Eds.),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pp.3-20). Mahwah, NJ: Erlbaum.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pp.753-797). Mahwah, NJ: Erlbaum.
- Norton, D.(1994). Education for professionals in family support. In S. Kagan & B. Weissbourd(Eds.), Putting families first: America's family support movement and the challenge of change(pp.441-470). Jossey-Bass Publishers.
- Patterson, G. R., & Forgatch, M.(1995). Predicting future clinical adjustment from treatment outcome and process variable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75-285.

- Siegel, E. (1985). *Parental Systems: The psychology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Wolchik, S. A., Sandler, I. N., Millsap, R.E., Plummer, B. A., Greene, S. M., & Anderson, E. R.(2003). Six-year follow-up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 1874-1881.

